5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혼조..다우는 0.6% 반등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50.34포인트(0.6%) 오른 8,469.1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32포인트(0.88%) 떨어진 1,715.92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89포인트(0.1%) 하락한 908.35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를 압박하여 개장초 반짝 오름세를 보인 이후 약세를 지속했음. 그러나, 장막판 앨런 그린스핀 전 연준 의장이 "주택시장이 회복직전에 있고, 금융시장의 개선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호재로 작용해 주요 지수들은 낙폭을 줄였고, 다우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음.
GM, 임원들의 주식처분 소식에 급락	GM이 파산보호신청 우려감으로 20%나 급락했음. 특히 자구노력 테드 라인이 내달 1일자로 임박한 가운데 임원들이 보유중이던 GM 주식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음.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GM 주식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임원들이 파산보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처분했을 것이란 의구심이 나왔음. 프리츠 헨더슨 GM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GM이 파산법정 밖에서 (생존)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그린스핀 전 의장 "주택시장 회복직전에 놓인 듯"	앨런 그린스핀 전 연준 의장은 이날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마련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택시장이 회복직전에 있는 듯싶다"고 밝혔음. 그린스핀은 또 금융시장이 개선세를 지속하는 것을 매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날 NAR은 올 1분기중 미국의 평균 집값은 16만 9,900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3.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152개 대도시중 올 1분기에 집값이 하락한 곳이 134곳에 달했음.
美 3월 무역적자 8개월 만에 증가..유가상승 영향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3월 무역적자가 276억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9년래 최저였던 전월(261억달러)보다 5.5% 가량 증가했음. 다만, 적자폭은 299억달러를 예상한 시장의 컨센서스 보다는 적었음.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줄었지만 유가상승 영향으로 수입 감소폭이 1%를 기록한 반면 글로벌 리세션 여파로 수출은 2.4% 감소하며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장중 한 때 60달러선 터치	중국의 원유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가 12일(현지시간) 오름세를 보이며 배럴당 58달러선에서 마감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5센트(0.6%) 상승한 58.85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제유가는 지난 2월 중순 배럴당 34달러까지 밀린 후 70% 이상 급등했음. 특히 국제유가는 장중 한 때 60달러선을 건드리며 60.08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음. 이날 유가 상승은 중국의 지난 4월 원유수입이 전년대비 14% 가량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음.
EU, 9월까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가 마련한 공통 지침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국가별 감독기구에 의해 시행. 그러나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미국처럼 추가 자본이 필요한 은행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 미국과는 달리 개별 은행의 자본을 평가하는 대신 은행권의 총체적 유동성과 자본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닛산車도 2년 연속 적자 전망	토요타 자동차에 이어 일본 3위 규모 자동차 제조업체 닛산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닛산은 성명을 통해 내년 3월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총 1,700억엔(17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中, 올해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시장 부상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 온라인게임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iResear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은 208억달러 규모로 급성장. 이는 전년에 비해 52.2% 늘어난 규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경기 하강 멈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에서 경기하강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최근 3개월 연속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영국과 중국도 경제지표가 2개월 연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
한은, 기준금리 동결.. '당분간 금리수준 유지'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음. 3개월 연속 동결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에 따라 2.0%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4개월째 지속되는 셈.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현재 2.0%의 기준금리는 상당한 금융완화기조"라고 언급하면서도 "금융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2.0%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음.
내달부터 복지지원금 '1인 1계좌'만 허용	1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통해 대규모 복지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1단계 조치로 '복지 수급자 1인 1계좌'로 규정된 가칭 '희망통합계좌' 작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음. 복지 지원금은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등 모든 분야의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을 통칭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